

# 도, 5대 안전지표 제로화 본격 추진

### 민방위 경보 난청지역· 재난안전사고· 사이버침해사고· 소방차량 노후율· 개인보호장비 노후율

지난해 '외부차입금 제로화'를 달성한 전북도가 올해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 안전 분야 '5대 제로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도는 채무 건전성 제고를 재정 개혁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중점 관리해온 결과, 2013년말 1,300억원에 달했던 외부차입금을 지난 12월 전액 상환해 '외부차입금 제로화'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도민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분야 5개 지표의 제로화를 목표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 시행해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예정이다.

먼저 전북도는 민방위 경보 난청지역 제로화를 추진한다.

지난 9월 지진 발생시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와 유,무선 통신의 사용량 급증으로 2시간 넘게 통신장애가 발생해 피해 상황이나 행동요령이 도민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해 큰 혼란이 빚어지면서 경보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도내 난청지역 제로화를 위해, '서해안 다목적 경보 시설' 등 10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가정용을 향상시켜 각종 재난 등 긴급사태시 도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는 재난안전사고 제로화에 도전한다.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2016 지역안전지수'에서 전북도는 안전지수 7개 항목 중 무려 4개 분야에서 전년 대비 1등급씩 상승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개선을 전국 1위와 전 항목 3등급 이상의 쾌거를 이뤘다.

전북도는 이에 멈추지 않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4대분야(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장기적으로 제로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3년간 222명 줄이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도, 시,군,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추진 T/F팀'을 구성해 서로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난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2년 연속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제로화에 도전한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관제시스템 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는 등 기반시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사이버침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제로화' 달성을 위해 내부보안 강화 차원에서 개인정보 관제시스템,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도에서 운영, 관리 중인 47개 대민서비스를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시행해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 요소에 대한 조치를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분야에서 소방차량 노후율 제로화와 개인보호장비 노후율 제로화를 추진한다.

소방차량 노후율 저감을 위해 지난해 108억원을 투입, 65대를 보강해 노

후율을 13.9%로 낮췄고, 올해에는 98억원을 투입, 54대를 보강해 노후율 0%를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노후율 0%를 달성한다면, 992년 전라북도 소방본부 발족 이래 최초로 소방차량 노후율을 제로화하는 더욱 뜻깊은 해가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지진이나 화재 등 각종 재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재난현장의 주역인 소방관의 안전이나 처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안전과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방화복, 공기호흡기 등 8종의 개인보호장비 1만5,269점을 보강해 '개인보호장비 노후율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5대 제로화 사업을 추진해 도민 안전 체감도를 더욱 향상시키고, 새로운 분야의 '제로화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을 제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도 '청년정책 포럼' 위원 모집

전북도가 청년 관련 정책의 제안 및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해 '전북 제2기 청년정책 포럼'위원을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80명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단은 전북에 거주하는 만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과 도내 대학생, 문화예술인, 청년CEO, 취업준비생, 근로청년 등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포럼단원 지원은 전북도 홈페이지의 공고/고시에서 '제2기 전라북도 청년정책 포럼' 참가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 지원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2기 청년정책 포럼단에 선정된 단원은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발대식을 개최해 분과를 구성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쳐 분과위원회 별로 본격적인 청년정책 발굴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단에서 발굴된 정책은 청년단체, 전문가, 실무부서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전라북도 청년정책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4개 광역단체, 에너지신산업 확산 협력키로

### 산자부, 전북·광주·전남·제주와 '육성 공동협약식' '정책토론회' 개최

전북 포함한 4개 광역단체가 에너지신산업을 핵심 전략산업화하기 위해 상시적 협력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11일 산자부가 에너지신산업 전략산업으로 육성중인 4개 광역지자체(전북, 광주, 전남, 제주)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에너지신산업 육성 공동협약식'과 함께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약식 및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과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지역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자부와 4개 지자체는 에너지신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역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자부와 4개 지자체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남아 있는 규제'라는 공동 인식하에 규제 개선을 적극 협력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구성됐다.

이들 단체는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조례, 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 프로젝트(Best practice)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 조정(상반기),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서남해 해상풍력과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센터 건설허가 지연문제 해결을 통해 오는 4월 단지를 착공할 예정이며, 비응도 등 산업단지 내 우수지를 활용한 15MW급 수상 태

양광을 6월에 착공한다는 목표하에 2월 사업자 선정 등 추진중에 있다. /인재용 기자

## '사이버 도민강좌' 시작

전북공무원교육원이 10일부터 '사이버 도민강좌'를 시작한다.

주요 과정은 외국어 3과정(영어, 중국어, 일본어)과 자격증 5과정(주책관리사, 공인중개사, 직업상담사, 불류관리사, 사회복지사), 9급 공무원(일반행정직, 세무직, 교정직)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과 9급 공무원 세무직, 교정직 과목이 추가됐으며, 휴대폰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사이버 도민강좌 중 가장 인기있는 강좌는 '공인중개사' 과정이며, 최근 공시열화에 맞춰 신규 서비스 중인 '에듀스파'의 9급공무원 강좌 또한 호응도가 높다.

한편 사이버 도민강좌를 신청하는 방법은 도민강좌 홈페이지 (<http://jeonbuk.npagoda.com>)에서 무료로 수강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 철새 먹이주기로 AI 확산 막는다

도, 주요 철새 도래지 동림저수지 등에 벌써 23톤 공급

전북도가 AI 확산 대응을 위해 도내 주요 철새 도래지인 동림저수지, 민경강, 동진강, 금강 일원에 철새먹이용 볏씨 23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철새 먹이주기는 최근 전국적인 AI확산의 원인중 하나로 겨울철 먹이부족으로 인한 철새 이동으로 보고, 주요 철새도래지의 '철새 먹이주기'를 통해 철새의 분산이동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도내에는 동림저수지, 민경강, 동진강, 금강 일원에 36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군집해 있다.

가창오리 등 철새가 가장 많은 고창 동림저수지에서는 지난 12월부터 벌써 0.5톤씩 주 1~2회 주기적으로 먹이주기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주요 철새도래지에 철새분산방지를 위한 먹이주기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고 철새 먹이주기 추진과 함께 주요철새도래지의, 방역추진상황 점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인근 주민과 탐조객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새 서식지 접근 자체는 물론, 부득이하게 철새 서식지를 방문할 경우 바람에 깃털, 먼지 등이 날리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고, 특히 분변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비누와 물로 씻는 등 개인위생에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AI 소멸 시까지 철새도래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개체를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시군 환경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 새마을회 신년인사회 개최

전북 새마을회는 10일 '다시 뛰는 새마을운동! 도약하는 전라북도!'라는 주제로 '새마을회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송하진 지사와 황현 도의회 의장, 전북 새마을회 박명자 회장을 비롯해 도 및 시,군 새마을 회장단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새마을운동 목표달성 및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2017년도 전북도 새마을운동 추진방향 설명, 참석자 소개, 신년사 및 축사, 떡케익 절단, 덕담 및 오찬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 새마을회 박명자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 세계잡버리가 새만금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도민의 마음을 모으고 유치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새마을회는 올해 사업 추진방향을 '국가발전과 인류공영'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공동체 의식 제고, 나라발전 기틀마련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설정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하고 캠페인, 순주 돌봐주기 운동 전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